

주보

2026. 8. 9.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엄태욱(목회)**

김윤수(교무) 차진호(청년·개척)

◆ 2026 표어 ◆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 2026 교회목표 ◆

1.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3.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교단 연합·함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6. 8. 9.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336장 2·3·4부: 21장 주일저녁: 370장	다같이
Hymn	(통383장) (통21장) (통455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1부 행(Acts) 8:1~4	
	2·3·4부 단(Dan.) 6:19~23	
	5부 대학청년 욥(Jonah) 1:1~3	
	주일저녁 룖(Ruth) 1:19~22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새로운 유형의 제자		양시루 목사
A New Kind of Disciple		Rev. Yang Shi Ru
2·3·4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영훈 목사
Faith That Depends on God Alone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하나님과 손절하려다 은혜 입은 요나		차진호 목사
Jonah, Who Tried to Cut Ties with God but Found Grace		Rev. Jinho Cha
주일저녁 마라에서 시작된 은혜		김정대 목사
Grace That Began at Marah		Rev. Jeongdae Kim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6. 8. 12.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정용훈 목사

2부(수요찬양)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부: 435장(통492장)

다같이

기도

1부: 김병화 장로

성경봉독

1부: 고후(2Cor.) 4:16 2부: 마(Matt.) 28:8~9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날마다 좋아하는 인생

1부: 이영훈 목사

빨리 무덤을 떠나

2부: 신에스티 목사

현금기도

1부: 윤희선 안수집사

금요일성령대망회순

2026. 8. 14.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이성광 목사

20시 30분

기도

이종복 장로

성경봉독

왕상(1Kgs.) 21:3~6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뭇

염태옥 목사

토요일예배순

2026. 8. 15.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박용식 목사

오전 7시

기도

유춘상 장로

성경봉독

창(Gen.) 5:21~24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축복

차진호 목사

현금기도

권형순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빛과 소금 되어	주일저녁	에벤에셀	윤 현 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일2부	베들레헴	데이비드 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수 요 1부	베데스다	이 종 진	엘리아의 하나님
주일3부	예루살렘	김 광 현	저 산으로 올라가네	수요찬양	호 산 나	윤 규 섭	주 너를 지키리
주일4부	나 사 렷	김 호 식	난 믿네, 험한 갈보리 언덕	금요일예배	갯세마네	박 상 현	주여 인도하소서
5부	대림절	임마누엘	이 수 범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용 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오늘의 말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하출임)
(단 6:19~23)

사 회

1부 07:00 이승준A 목사

2부 09:00 정 용 훈 목사

3부 11:00 김 형 건 목사

4부 13:00 신 의 규 목사

5부 14:30 박 민 상 목사

주일저녁 17:00 이지영B 목사

대표기도

1부 김 재 경 장 로

2부 이 강 우 장 로

3부 황 정 익 장 로

4부 안 성 윤 장 로

5부 황 현 철 장 로

주일저녁 홍 순 건 장 로

현금기도

1부 양 기 진 안수집사

2부 김 현 동 안수집사

3부 오 기 한 안수집사

4부 전 태 수 안수집사

5부 최 미 라 성 도

주일저녁 김 영 배 안수집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Faith That Depends on God Alone)

단(Dan.) 6:19~23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이 세운 나라와 권세는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진 것처럼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Daniel, a Man of God)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뒤 왕의 신임을 받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습니다(단 2:48).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바사의 다리오 왕은 이전 왕조의 신하였던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를 인정하여 총리로 세웠습니다(단 6:3).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와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무리들 (Those Who Oppos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 온 유대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자 고관들과 총리들은 그를 시기하며 어떻게든 끌어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다니엘의 삶을 살폈지만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단 6:4).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삼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사자 굴에 던지도록 했습니다(단 6:7).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 기도의 사람 다니엘 (Daniel, a Man of Prayer)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금령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루 세 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단 6:10). 이와 같이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리오 왕도 사자 굴에 던져진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단 6:20).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반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단 6:24).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예 배

- 8월 둘째 주 새벽예배-일시: 8월 10일(월)~8월 14일(금)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11일 제직특화), 박용식 목사(10일), 임태욱 목사(12일), 김민철 목사(13일, 14일)
- 남선교회 2026년도 8월 헌신예배-일시: 8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황선욱 목사

모 집

-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베다니 찬양대(주일부), 나사렛 찬양대(주일4부)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여의도순복음영산신학원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문의 ☎ 02-6181-7715
모집과정: 신학연구과정·목회연구과정·평신도지도자과정 / 모집기간: 8월 21일(금)까지
- 굿윌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참가자 모집
일시: 9월 12일(토) 오전 8시 / 장소: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모집인원: 4,500명(선착순) / 접수기간: 8월 13일(목)까지
- 로고스교수선교회 회원 모집-문의 ☎ 02-6181-7250
자격: 캠퍼스 선교에 열정을 가진 대학교수, 강사, 전문직 / 장소: 로고스교수선교회실(세계선교센터 9층)

안 내

-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사업국 사회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교육 인증 프로그램 강사 양성 과정
일시: 8월 15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 장소: 세미나실(제1교육관 10층)
- 안수집사회 2026년 피택 안수집사 정규교육
일시: 8월 22일(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안수집사회(세계선교센터 3층) / 강사: 임태욱 목사 / 대상: 2026년도 피택 안수집사
- 8월부터 '3천 기도 용사와 함께하는 오순절 기도학교'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세계선교센터 1층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8/16, 8/19, 8/21, 8/22) 대표기도

주일예배(8/16)						수요일예배(8/19)	우상선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8/21)	장래성
임완순	이상준A	이근주	임임택	김광현	윤이한	토요일예배(8/22)	전덕영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모란디는 평생 볼로냐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살며, 침실 겸 작업실에서 병과 주전자, 몇 가지 그릇만을 그렸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흔한 병의 상표를 떼어 물감을 입힌 뒤 선반에 올려 두고 오래 바라보며, 같은 병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해 그렸습니다. 그는 늘 같은 것만 그렸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한 뼘만 옮겨도 빛이 달라지고 그림자의 길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병이었지만, 그는 볼 때마다 새로운 표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낡은 그릇들이 부엌의 식기와 달리 아름다운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얼굴을 마주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시선은 짧아집니다. 아이가 언제 저만큼 자랐는지, 부모님 손등에 언제 주름이 깊어졌는지 모른 채 지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대충 바라보는 셈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멀리 떠나는 계절입니다. 낯선 곳은 처음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반면 오래 보아야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모란디의 병처럼 곁에 있는 사람도 들여다본 시간만큼 다르게 보입니다. 늘 마주 앉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놓쳤던 고마운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을 지도 모릅니다. 울여름엔 먼 곳의 풍정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가정의 양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